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朝鮮金融機關의 整理
普通銀行支店網을 擴大하라

一

突然 昨日午後에 財務局과 殖銀으로부터 朝鮮內 十八銀行의 九個所支店業務를 殖銀에 넘기고 結局 十八銀行支店網은 朝鮮內에서 撤去키로 되엿슴을 正式發表하엿다 이 十八銀行支店이 朝鮮에 건너오기가 第一銀行의 다음으로 오래며 또는 그 地盤이 相當함을 不拘하고 이처럼 그 支店網을 모두 殖銀에 넘기게 되는만큼 一般으로 하여금 驚異의 念을 갓게하며 더구나 그 支店撤去의 理由를 오늘에 잇서 朝鮮內에 支店銀行이 잇슴으로서 朝鮮內 金融統制上 支障이 생긴다는 見地上 大藏省 銀行局의 勸說에 依하엿다는것으로 삼은것이 더욱 朝鮮金融界의 注目을 끌게한다 이에 依하야 보면 오늘에 朝鮮內의 所謂支店銀行은 十八銀行뿐만 아니라 朝鮮金融界에 잇서 가장 오랜歷史를 가진 第一을 비롯하야 安田、三和等의 銀行支店이 잇슴으로 結局 그 撤去의 波動은 順次的으로 此等의 支店銀行에도 밋치게될것은 必然의 勢로 볼수잇게되엿다

二

이에 對하야 財務局에서도 支店銀行을 撤去케할 方針이 樹立됨에 依한것이 아니나 朝鮮內의 金融統制上 支店을 整理할時期에 이른것은 事實로 兩方의 妥協만 되다고하면 十八銀行에 안끗치고 第一、安田、三和等支店銀行도 買收合併케될것이라고한다 이것으로써 朝鮮內支店銀行의撤去는 거의確定的으로 되어잇슴을 能히 엿볼수 잇지안흘가 한다 果然 四支店銀行의 撤去가 事實化한다고 하면 多年 그大資本과 大規模의 威力에 눌려오는 朝鮮內 普通銀行을 爲하야는 얼만큼 重壓의 緩和劑가 될것으로 생각할수도 잇다 그러나 이것은 單純히 皮相的 觀察로 實際에 잇서는 그期待에잇서 疑問을 갓게한다 왜그러냐고 하면 아즉 全部가 아니지만 그첫거름으로 十八銀行을 特殊銀行인 殖銀이 買收合併키로 되엿느니만큼 普通銀行으로서는 直接的 所得이 거의 업다고 볼수잇다 다만 이것은 特殊銀行의 擁護와 當局의 金融統制上 一種의 支障이 除去됨에 끗치는 結果가 아닐가한다

三

朝鮮에잇서 金融統制는 손을 대여온지가 이미 오랜時日이 걸렷고 딸아서 普通銀行의合併은 相當히 進行되야 近年에 이르러는 그第一段의統制策을 끗내이고 將次 第二段의金融統制策에 드러가는 情勢압에 잇는것이 事實이다 卽 오늘의朝鮮內金融機關은 이만하면 完備가 되엿다고하야 第二段의金融統制로 支店銀行의 整理에 손을 대이게 된은 當然히 取할길이다 그러나 朝鮮이 아니면 볼수업는 特殊銀行의 普通銀行業務兼行으로 普銀이 壓迫을 밧고 잇는 이때에 普通銀行 더구나 그規模가 大한 支店銀行을 特殊銀行에 合併케함은 一面 그普通銀行의業務를 擴大케하는感이 업지안라 勿論 이와가티 大規模의 支店銀行을 朝鮮內普通銀行으로서는 買收合併할힘이 不足하다는것도 한理由가 될는지 모르나 그러치만 이것은 根本的問題가 아니다 오늘의朝鮮金融統制策이 特殊銀行의中心을 떠난다고하면 그것도 不可能한일이 아닐것으로 생각한다 그러고 이번에 買收合併키로 된十八銀行支店이잇는곳에는 滿州를除外하고는모두 殖銀支店이 잇슴으로 支店을 新設치 안흘터이라고한다 그러면 滿州와 가튼곳은 銀行이 全然업게되는 結果의 不便을 할수도잇다

四

銀行의存立은 金融統制上 不安의念을 갓게한다 그러나 朝鮮의實情을 살피면 京城과가튼 곳에는 金融機關이 完備되엿다하드래도 全朝鮮을 通하야 보면 地方的으로 銀行機能의 必要를 느끼는곳이 아즉도 相當히 만흔터이다 이것은 變態的인 都市金融組合이 地方都市에잇서서 金融機關으로 되어잇슴을 보아서 잘 알수가잇다 그럼으로 지금에 銀行의 新設은 어때에잇서 要望할수 업지만 적어도 旣設된 普通銀行으로하여금 그支店網을 適當히 地方的으로 擴大케함이 地方金融界의 進展을 圖하는策이 되지안흘가한다 이에잇서서 支店銀行의買收合倂을 오즉 特殊銀行中心으로할것이 아니라 特殊銀行을 떠나서 旣設普通銀行의技能을 地方的으로 充分히 發揮케함이 機宜의策일것으로 잇는다 그러고 이機會에 法規上 當分間이란 文句압에 特殊銀行인 朝銀、殖銀에서 兼行하고잇는 普通銀行의 業務를 廢止하는것이 財務局의所言과가티 朝鮮內 金融機關의 完備를 名實相符케하는것이 되지안흘가 하는바이다

日本全權團、請訓後 會議脫退斷行乎
建艦通報案의 挫折로 會議의 中止는 必至
今月下旬에 倫敦撤歸

【倫敦九日同盟特派員發】英國政府는 軍縮本會議의 破局을 압두고 日本全權團에 會見을 申請하야 起死回生策을 講究할 作戰을 取하엿는데 結局 私的會談은 何等의 成果를 期待할수업고 英國代表도 日本全權說得을 斷念하고 十日午後 第一委員會까지 英、佛、伊三國代表의 建艦通報案에 對하야 調和點의 發見을 圖하야 마침내 通報案을 成立식힌後 日本政府의 參加를 要請하게 되리라고 觀測되다 따라 第一委員會에서 暫時 通報案이 討議되고 倂行的으로 量的制限案이 審議되리라고 觀測되는데 日本全權團은 共通最大限度案이 容認되지안는限 正式通報案에關한 討議參加를 拒否하고 來週에드러 「訓令대로任務를 遂行할수업고 軍縮의大目的은 達成할수업게 되엿슴으로 더以上 會議에 머므는것은 無意味하다고 解釋된다」는旨를 本國政府에 請訓하야 回訓을 接하는대로 마친 會議脫退를 斷行하리라 하는바 英、米、佛、伊四國代表는 責任을 日本에 轉嫁하리라고 觀測되다

【倫敦九日同盟特派員發】日本全權團의 反對로 建艦通報案은 暗礁에 逢着하게되는結果 十日 第一委員會로서 海軍縮少本會議는 事實上 中止하게되리라는 觀測이 漸次有力하게 되엿다 外交界의 消息에依하면 英國政府는 벌서부터 日本代表의脫退를 覺悟하고 米、佛、伊三國代表部에 接近하야 四國代表만으로 協議를 遂行할意向이라고한다 何如튼 十日로 海軍縮少本會議는 事實上 終了될터인바 來週後 急遽 大團圓을 告하지안흘가 觀測되다 日本全權團도 二十四日 倫敦을 出發하야 三十一日 마르세이유 解纜郵船箱崎丸으로 歸國途上에 오르게되리라고 觀測되다

永野全權孤軍奮鬪
英佛伊案極力反對
八日第一委員會의論戰

【倫敦八日發電通】八日 軍縮委員會에서는 永野全權이 英、佛、伊建艦宣言案의 本末顚倒를 指摘한 日本代表部의 意見書를 朗讀하고 共通最大限案討議를 要求하매 豫期는하엿스나 極端的이고도 가장 率直한데 各國代表는 자못 驚愕한 表情을 示하엿다 그後 約廿分間의 論戰은 實로 緊張되엿섯다 卽 몬셀 英海相은 爲先 建艦宣言交換案은 量的軍縮의 一部인것이 틀림업슴으로 日本代表의 討議方針에 背反되지안는다고 懷柔하려하엿스나 永野全權은 量的討議라면 말한바와가티 實로조타 그러나 量的問題의가장 重要한것부터 始作하여주기바란다 兵力量을 增加하는것인지 減縮하는것인지도 아지못하는데 建艦宣言 通告手續을 決定하려는것은 大本을 뒤로돌리고 枝葉末節을 決定하려하는 嫌疑가잇다 大體로 只今까지의 軍縮會議는 軍縮의 眼目에 抵觸하지안코 附帶條項만을 專혀 決定하려하지안는가고 急所를찔럿다 그리고 몬셀海相의 立場을 援助하야 데비스 米代表는 軍縮의 諸相을 모든角度에서 倂行的으로 探究하여가는것은 關係各國으로 米國代表는 英、佛、伊案의 討議를 繼續하드라도 조흔줄로 思惟한다고 述하매 佛、伊代表도 亦是 이에同意를 表明하엿다 玆에永野全權은 再次發言을하야 單純한 建艦宣言의 手續論案은 會議의現在段階에잇서서는 論議를 留保하기바란다 그러나 佛伊案에는 宣言의基礎라는意味에서 建艦量을 包含하여잇는것은 疑心할餘地가업다 我等은 이點에서 禁止한量的制限討議에 入하기를바란다 故로 我等은 이點에 對하야 意見을 이미表明하야

一、現有勢力削除에抵觸치안는點
二、따라 國民政府의 承認되지 안는點
三、兵器의 相互援助를 決定하지아니하엿슴으로 海軍競爭을 招來할 念慮가잇는點

等을 列擧하고 그廢止를 加할것을 說明하고 事態를 憂止한 軍縮會議로 誘導하야 會議를本途로 復歸케하기爲하야 努力을 다하엿스나 元來 日本의 共通最大限主張에 對하야 難色이잇는 列國代表는 이點에 態度를 變하지안코 會議는 (以下 判讀困難)

英利權과內蒙問題로 國府의眞意打診
英蘇兩國大使南京行

【北平九日發電通】英國大使카도간氏는 九日午後三時五分 北平發飛行機로 南京에向할터인데 英大使의 南京行은 冀東政權強化에따라 同政權區域內의 開灤炭坑、秦皇島築港等 英國의利權을 憂慮하고 南京政府今後의 冀東政權對策及 北中一般事態에 關한 態度에 對하야 그眞意를 質하고 英國의權益擁護 方策樹立에 資하려하는것이라고 觀測되다 그리고 蘇聯大使 보고모로프氏도 近近南京에 赴하기로되엿는데 同大使는 最近 察哈爾省北部六縣에 李守信軍이 進出한것을보다면 內蒙獨立은 必至의形勢인데 蘇聯의 外蒙政策遂行은 日本勢力과 直接衝突할 憂慮가잇슴으로 南京政府에對하야 內蒙政策에關한 眞意를 向問하리라고 信憑되다 그리고 英蘇兩國은 北中의 利害的 立場에잇서 自然共通되는것이 잇슴으로서 南京政府에 迫하려하는 英蘇 兩國大使는 함게 南京에 赴하야 兩國合作의 共同動作을 取할것이라고 觀測되다

日本을除外하고
四國間新協定成立할듯

【倫敦九日發同盟】建艦通報案을 中心으로 海軍縮少本會議는 重大難局에 直面하게되는 同時에 벌서부터 日本代表를 除外하고 英、米、佛、伊四國代表間에 新協定을 成立식히려는 示唆가 濃厚하게 되엿다 勿論英國政府에서는 招請國의 立場에서 어데까지 五國協定의 成立을 期待하고잇다고 解釋되는바 米國代表部에서도 作戰의實際上 日本政府를 列外에 放棄하는데는 難色이 잇다고 觀測되는데 佛國代表部側은 八日夜 會議의 今後議事에對하야 大體左의 觀測을 나리고잇다

英國政府當局에서는 建艦通報案에對한 永野全權의反對에 對하야 急遽 會議를 中止할 方針을 樹立하고 英佛伊提案을 綜合하야 具體的方針을 確立하게된 模樣이다 新方式이 成立되는대로 日本代表에 提示하야 日本의 意見開陳을 求할터인데 日本代表가 此를 拒否하면 議事는 英、米、佛、伊四個國代表間에서 續行될는지도 알수업다

永野全權
斷乎한決意表明

【倫敦九日午前二時發 同盟特派員】永野全權은 八日夜半 宿舍에서 斷乎한 決意를 表明하야 將來할 軍縮會議局面에 逢着하야 英國代表가 和戰兩樣의 手段을 如何히 쓸것이냐? 各國代表가 如何한手段을 弄하든지 今後는 國民總意의 强固한 큰意思가 動하고잇슴으로 永野一個人을 움죽여도所用업다 도움죽이지도안는다

英佛兩國이企圖
大規模의空陸軍提携
英獨의諸新聞이頻繁히報道
佛國側에서極力否定

【巴里九日發電通】聯盟規約第十六條 共同制裁規定을 適用키爲하야 英佛兩國參謀本部가 大規模의 陸軍及 空軍의 提携에 對하야 協議를 進하고잇다는旨를 最近 英獨諸新聞에 자못 報道되여잇는데對하야 佛國政府側에서는 右는極히簡單한것이라는旨를言明하야 特히 傳하는바와가튼 總動員은 議會의投票에依하야 承認

上海의白系露人
蘇總領事館襲擊

【上海九日發同盟】八日午後二時五十分頃 上海蘇聯總領事館附近을 徘徊中의 一名의 白系露人이 함머를 내두르며 함부로 通路에面한 表窓硝子를 되는대로 破壞한다음 蘇聯邦을 表徵하는낫(鎌)과 함머(鎚)의 門標를破壞하고 逃亡하려하던것을 急報에依하야 달려간 工部局巡査에게 現場에서 逮捕되엿다 逮捕된白系露人은 와시리 드미트리체르신(音)이라稱하고 白系露人의 自治團體인 亡命露人社의 社員이엇다 犯行의動機는 蘇聯에反感을가진 露人의 不滿이 爆發한것으로 當地에在한 白系露人對蘇聯人의 對立은 相當히 强하야 極力警戒에 努力하고잇다

事實上討議는
十日會議로終了

【倫敦九日發同盟】英國政府에서는 日本全權團이 脫退할境遇를 豫想하고 벌서부터 米佛伊三國代表에 對하야 脫退後에도 會議繼續을 申請하엿다고傳하나 米國代表部等에는 이러한 氣運이 보이지안코 日英兩國代表의 私的接衝에 一縷의希望을 가지고잇는 模樣인데 結局第一委員會 十日會議에서 議事는 事實上終了되고 來週에드러가 뒷處理에着手하야 量的制限案 通報交換案 質的制限案을 採決에 附하게되리라고 觀測되는데 結局 倫敦條約 第四篇 潛水艦使用制限案이 獨立한條項으로 成立하는外에는 何等成果를 擧하지못하고 散會하게되리라고 觀測되다 華府條約 第九條 太平洋島嶼의 防備制限案을 更新하는데는 日本全權團도 贊成하나 事實은 어지되든지 조호나 上程될는지 안될는지는 아직豫測할수업다

新聞發達略考
最近十五年間文化側面史
指導的使命은本報의傳統
四面에서十二面에

本報가 過去十五年間 朝鮮文化史上 남긴足跡은 實로 巨大한배잇다 이제 또다시 一九三六年을 마지하자마자 今月七日附로서 從來의 十面制로부터 一躍十二面制를 斷行하게 되얏슴은 우리新聞史上의 新紀元을 짓는 偉業임은 勿論이거니와 一般文化運動史上으로보드래도 한개의 巨彈的事業이 아닐수업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讀者 諸氏에게 對한 「熱과誠」의 一端을表現한데 不過하다 우리는 讀者를爲하야 보다더큰 犧牲을覺悟하고잇다 다만今日의 우리로서는 最大의 奉仕를 헌다는것이다、더커진 朝鮮에는 더커진 朝鮮日報가 나와야겟고 只今으로도 自信잇게 期約할수 잇는일이다

◇

朝鮮에서 近代式新聞이 發行된지 數十有年에 이제 本報가 비로소 十二面이라는 飛躍的紙面擴張을 斷行하고나서 우리의長久한 新聞史와 先進諸國의一流新聞과 比較할때에 아즉도 滿足치못한배 잇스나 新聞은 그가 자라고잇는社會와 連鎖關係를 가지고잇는것이라 우리는 허되이 新聞만가지고 嘆息할수업는일이다 그러나 十二面이면 世界의어떤나라를 勿論하고 부끄럽지아니한 新聞인것은 事實이다 우리는 量에잇서서뿐만 아니라 質에잇서서도 멀지안코 將來에 世界的新聞으로 進出하는날이 오기를 바라는바이거니와 이제 이機會에 朝鮮新聞의 發達史를 一瞥하면 新聞으로 可能한 모든 文化運動에 잇서서 늘本報가 率先하야 最大의 努力을 해왓드니만큼 紙面擴張에 잇서서 언제나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實施해왓든것이다

◇

本報가 草創期의 四面制를 六面制로 採用한것은 大正十三年十一月二十三日이엿다 當時는 故李商在先生이 社長時代로서 民衆과손을 마주잡고 萬般에 잇서서 新聞本來의 使命을 다하라는때이다 六面이면 現在의半이니 今日로볼때에는 일단지안히보일는지몰으지만 그때로서는 亦是今日과가티 悲壯한決心을 要하는것이엿다 더구나 先輩諸者의苦心이란 今日이나 조곰도 달을것이엇섯슬것이다 그뒤一年을 지나 大正十四年八月一日부터 東亞日報는 四面에서 六面으로 當時의 中外日報는 四面그대로 發行하고잇섯다。 成長하는 朝鮮의新聞、本報는 다시 八面을發行할時運에 다닷치 昭和四年十月三日 東亞(同九月二十日) 中外(同九月上旬)와 前後하야 八面制를實施하면서 紙面을 一新하야 他紙의追從을 不許하는 新新한 紙面을 맨드럿다

◇

昭和八年七月 現社長이就任한지 月餘인 同八月二十四日부터 夕刊八面에서 一躍十面으로擴張하는同時에 朝夕刊을發行하야 朝鮮新聞界의 新紀元을짓고 이제 今月七日으로써 또다시 率先하야 十二面으로 增面한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以上과가티 누구보다도 率先하야 紙面을 擴張해오는동안 언제나 紙面內容의 忠實을 期하야왓다 決코量으로만 滿足하려는것이아니고 언제나 量的向上과 同時에 質的向上을 圖謀해왓든것이다

이제 十二面을 發行하는今日에 잇서서는 이巨大한豪華를 奧斷하는것과가튼 熱誠으로써 보다더 迅速한新聞 正確한新聞 公正한新聞 明朗한新聞、有益한新聞을 讀者諸氏에게 提供하려하는者이다 (一記者)

對外貿易
入超는겨우一千四百七十萬圓
輸出入보다增加

【東京電話電通】大藏省發表=昭和十年度에 잇서 日本內地及 外地를合한 對外貿易額은

輸出 二十六億二千三百十八萬圓
輸入 廿六億三千七百八十八萬圓
合計 五十二億六千一百六萬圓
差引入超 一千四百七十萬圓

을 示現하엿는데 이것을前年에 比較하면

輸出 三億四千五百九萬九千圓 (一割二分五厘)
輸入 二億一千七百三十七萬五千圓 (九分一厘)
輸出入 五億六千二百四十八萬四千圓 (一割二分一厘)

가 各其增加되엿고 貿易結果에 잇서서 겨우 一千四百七十萬圓의 入超로 前年의 一億四千二百四十萬四千圓에比하면 一億二千七百七十萬四千圓의 入超減이다

◇時事漫畫=火星天文臺의報告=【最近 盛히 落下되는 隕石은 地球星內의 火山系의 活動에 依한 噴出物이다 方今「北中」區와「地中海」區의 兩大火山의 噴火는 심하며 爆發은 어느것이 먼저될는지모르나 멀지아니할것은 확실하다 地球公轉二十回만에 처음보는 現象이다】

北中駐屯軍擴充
陸軍首腦部具體的研究

【東京電話電通】北中駐屯軍의 編成擴充問題 그他의 重要任務를 帶하고 天津軍及 關東軍과 協議를 遂한後에 歸任한 陸軍省軍務局 軍事課高級課員 武藤中佐는 十日 川島陸相 古莊次官 今井軍務局長 村上經理局長等에 對하야 北中及 滿洲現地當局과 協議한 重要事項에 對하야 詳細報告할터인데 刻下의 北中諸般의 情勢로보나 北中駐屯軍擴充에 關한 現地側의 意向은 大體로 中央의 意見과 一致되는바 急速한 實現은 各方面에서 熱心으로 要望하는 實情에잇슴으로 마침내 中央部에서도 右問題에 對하야 具體的研究를 進行하기로 되엿다 現地中央部間에 意見一致된 擴充案의 基礎的條件은

一、北中駐屯軍司令官은 現在少將級으로 任命하여잇스나 此를 昇格하야 師團長級으로 中將을 任命할것
一、北中駐屯軍司令部를 擴充할것
一、北中駐屯軍의 兵力을 約一個師團에 該當하는 混成旅團으로서 編成할것

等인데 來三月의 異動에서 多田軍司令官을 更迭할 中將級의 軍司令官을 任命하자는 意見이 有力함으로 當然 駐屯軍擴充問題도 그때까지는 具體案을 決定하야 追加豫算으로써 經費를 要求하리라고 觀測되다

中國海軍
上海附近서大演習

【上海九日發同盟】中國海軍部發表에依하면 近近 上海近海에서 海軍部統監下에 海軍大演習을 擧行한다고한다 그리고 同演習參加軍艦은 다만 巡艦八隻이다

蘇聯機關紙
日獨軍事同盟說報道

【莫斯科九日發同盟】日獨兩國政府는 軍事同盟案에 對하야 極秘裡에 折衝을 遂하고잇다는報道에 對하야 蘇聯政府機關紙 이즈베스치아紙는 九日紙上에 次와如히 報道하엿다 日本外務、陸軍兩當局이 모도否定하나 타스通信은 倫敦의 絶對信賴할만한側으로부터 日獨兩國間에 極秘密裡에 軍事同盟締結折衝이 進捗되고잇다는 情報를 接受하엿다 右에依하면 日本軍閥은 伯林駐箚大使館附武官을 通하야 獨逸國防軍代表와 軍事同盟締結에關한 商議를 進行하고잇는데 右折衝의背後에는 日本外務、陸軍兩省이잇다

夕刊後市況 九日

◆大阪 短期 (先限)◆
大新 九四二〇 (二〇低)
鐘新 一四八五〇 (四〇低)
日產 七三九〇 (一〇低)
東新 一六四二〇 (三〇低)
◆横濱 生糸 (先限)◆
當限 九〇一〇 先限 八七五〇
◆三井 人絹 (先限)◆
當限 五五五〇 先限 五四四〇

명생촌야 野村生命 本店 東京 支店 京城黃金町二丁目

金 白金 福 銀 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ライトインキ 라이도잉키 天下一品! 一家一瓶! 化學의極致! 現代에는이以上가는것은不可能 大阪小賣各種全國의文房具店에잇슴…… 2オンス入(スポイト付) 正價30セン 總發賣元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スメル製藥 延子機 最新式 蟹類特許機 カタログ呈 金儲 大阪西淀川區浦江二中 石樫製造所

문둥병 으로永年間困難한분은 家傳良藥과 療法잇슴 又는近親者가 … 內容說明書無料進呈함 大阪市天王寺區勝山通四ノ一三 コトブキ園

自轉車 問屋直賣 信用重視 在庫品豊富 特典付 進呈 東京市日本橋區 …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

치질 肛門病科專門 東光醫院 大田本町一丁目 (電話四九番)

돈버리大王 리도-式 膨脹機 五合의米와 옥수수가 八升의菓子가된다 兒島製作所 大阪市

好職業 金千壽商店製粉部 商標 고추가루 部賣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何をのんでも全治せん 苦惱する者は 護身淋藥 東京市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中央館 永樂町 電本一三二一

第一劇場 はれやか

都市보다鄕村으로 舊歲末警戒陣强化

市內各警察에서十日間繼續 三期에노나署員總動員

이중과세를 폐지하자는 아우성소리는높것만은 아직도 우리가정에서는 구력설날이아니면 떡국한그릇도 맛이업는 모양으로 그대로 구력설을 쇠이고잇는집이만라 따라서 양력명일이 지난지 얼마못되여 북촌일대에는 거리거리에 구년말대매출의 기스발이날리며 집집마다 설빔에 눈코뜰새가업는 형편으로 분망복잡하기가 신년변말에 비할것이아니다 관내주민의 약구할이 구력명절을쇠는 종로경찰서에서는 아직도 양력변말경계의 피로가 다회복도되기전에 또다시 오는 십오일부터 약열흘동안과 강음십괴(三期)로나누어 특별경계를 단행하야 변말변조의복잡한틈을탈아 일어나는 범죄를예방하기로 되엿다한다 그러고이와동시 다른 각경찰에서도 특별경계를 개시할터인은 물론이니 특히 도시보다는 향촌이 더욱 경계 할필요가잇서 당국에서는 향촌에 더욱 주력하리라한다

地下工作準備든 廣州靑年十三名

路上에서주은封書를端緒로 永登浦署에서檢擧

【永登浦】지난오일 영등포서원이 로량진방면을순찰중 우연히 로상에서어든 봉서한통을 단서로 아연긴장하야 즉시로량진모양조장출장소서긔모를 본서에 인치취조하는동시 광주군중부면 산성리(廣州郡中部面山城里)에 근거를 둔 광주의 지하공작 결사관계자서모(徐某)(二〇)를 검거하는 동시에 팔일오전구시부터 형사대를 경성(京城)인천(仁川)광주(廣州)등지에 급행식혀 그외십삼명을 무난히검거하고 서적、서약서등 팔십여권을 압수한후 작등고등주임(佐藤高等主任)이하 계원이 분담적으로 철야취조중이고 미체포된 공범일명도 금명중 검거를볼모양이다 사건의 내용은 작년이월 전기 광주군중부면 산성리에서 로동조합을해산당한 전긔십삼명의 관계자들이 다시 무산대중사(無産大衆社)를 건설할게획으로 제일회지하공작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이든것이라한다

崔益翰出監

제이차공산당사건으로 대전(大田)형무소에복역중이든 최익한(崔益翰)은작년형기와 일년가형을 마치고 작팔일출감하야 즉일로상경 견지동오십사번지 승경려관(昇京旅館)에체류중이라고한다

大審院檢事가 大本教搜査

【東京電話電通】작년십이월팔일에 대검거(大檢擧)를본 대본교불경사건(大本敎不敬事件)에관하야서는 이래경도지방검사국 사상부와 내무성경보국(警保局)에서 신중취조중인데 동경시국의 덕영검사(德永檢事)와 대판공소원검사국의 길익검사장(吉益檢事長)으로부터보고되고잇는바 동사건이중대성을 띠우고잇는만큼 광행검사총장(光行檢事總長)은 대심원·검사국의 류정검사(柳町檢事)를 경도로 특파케되여 구일 오전아홉시에 동검사는 내무성경보국의 상천보안과장(相川保安課長) 과함께 동경역을떠나 경도로 출장하엿는데 이와가티 대심원검사가 현지(現地)에 출장하야 즉접으로 수사의지휘를 하는것은 아즉것 보지못한일이라한다

配達途中나무바리 車夫가橫領

시내 교북동(橋北洞)사번지 사는 마차부송만복(宋萬福)은지난오일에 시내의주통(義州)이정목나무장에서 시내광화문통(光化通)팔십사번지 김상린(金尙麟)이라는 사람이나무 한구루마를를사가지고 그의집으로 실어다달라는것을 중간에서 시내관훈동(館洞)오십오번지 사는한기동(韓洪東)에게 갑울두게하야 파라먹어버린 사실이탄로되야 팔일에서대문경찰서에 붓잡혓다

◇四溫閑景……빨내터를차저서

平壤에遠征간京城白狗俱樂部氷上代表들

奉天朝鮮人街에 七萬圓의大火災

朝鮮人料理店金泉館이半燒 五十餘名의雇女잠옷대로避難

【奉天】지난 팔일오후 령시에 당지 십간방(十間房)홍등가(紅燈街)의 패왕인 조선료리점 천관(金泉館)본관에서 불이나서 삽시간에불길은커저서 작년가을 거액을드려증축한신관으로 옴기게 되엿슴으로 일만소방대(日滿消防隊)는필사적으로 소화에 노력한결과 본관한채만 전소되고오후 한시반경에야 겨우진화식혓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업섯고 손해액은 약칠만원에 달한다고하며 발화원인은 루전(漏電)인모양이라고한다더욱히오십여명의 작부와 예긔들의 사재(私財)의손해도 수천원에 달한다고하며 바로자리에서 이러난때이엿슴으로 잠옷그대로 불길에쪼겨나 치운겨울밤의 박게서 떨고잇는 가련한 정경이엿스며 근방일대에는 경관연고에 휩싸여 일시혼잡을일우엇섯다고한다

運動競技

京平氷上對抗戰前記

勝算은平壤軍에게잇다

◇……우리氷上界「選慶의 三冠士」世界舞臺에뛰어나보낸 海內의 수씨-군은 寂寥하리라고 以上의 活躍을띄우고잇다 그中에서 朝鮮를 가장燦然히빗내일 第五回京平對抗氷上大會는 本社後援아래 明十一日午前十時부터 平壤練光亭下大同江氷場에서 이열리게되엿다 이記念할 對抗戰을앞두고 京平兩都市「스포-츠팬」들의 擬測도 區區하려니와 이제簡單한 戰前記를 草하여팬들의 參考로하고저한다

◇……只今까지의 戰績은 京城이二勝一敗에 平壤이一勝二敗로 京城이리-드하고 잇스나 빼앗긴榮譽를 奪回하려고 虎視耽耽하고잇는 平壤軍에 對하야京城軍이 그榮譽를 死守케될는지 자못 苦戰일것이 想像된다 第三回까지의京平戰의水準은 우리氷上界를 代表할만한 實力戰이엿스나現在의 京平兩都市選手의 力量은 多少低下한感이 不無하다 이제兩軍의 陣容을보면 平壤軍의 主力部隊는 李仁源(光成)金龍鎭(平壤出)兩君이다 李君은 昨春 日光서열린 世界올림픽第一次選考에서 第十二位에列한超中學級의 猛者이다 그뿐만아니라 全朝鮮中等大會에서 五百(四九秒八)千五百米 (二分三十六秒三)兩種目의記錄保持者로서 全平壤의 榮譽를홀로집머진 選手이다 그리고金君은 第三回때에 五百米의 優勝者로서 連霸의意氣에 불타고잇스며 往年의覇者朴應楨、咸明淳兩君을 補佐役으로 金守珠、韓仁德、韓景淑諸選手도出場하야 得點分散에 奮鬪할터인데 이에平壤軍에 對敵할 京城軍의 陣容을보면 누구보다도먼저 徐鍾淑君의活躍이 期待된다 그밧게新進白承旭(第正)白承哲(普專)兩君이 버금가는鬪將일것이며 金容植(普專)君은 練習不足으로 出戰할는지가問題이다 그리고老將 徐點龍、李惠淳、嚴點得 諸選手가出場할터이나 入賞까지는 바라기어려울것이다

◇……以上의陣容으로 보아勝敗의 分岐點은 全種目의 優勝인平壤軍의李仁源對 京城軍의崔淑源兩君의 單兵戰에달려잇다 只今의實力으로는 李君이 저옥이優勢를보이고잇스나 「라스트·스파-트」에妙味를가진 崔君을輕視할수는업슬것이다五百米、千五百米、五千米、萬米、二千米릴레이等 五種目에亘하야 亦是興味잇는 熱戰이展開될터인데 率直한豫想으로는 大體로 平壤軍에게勝算이잇다고볼것이나 實戰에잇서 京城軍의活躍이 어떠할지는또豫斷키도어렵다 그러나 平壤軍이 去年의敗憤을雪辱하여 二勝二敗의同率로되리라고보아 큰錯誤업슬듯십다 (KO生)

京城運動場에 스께트링크公開

京城府에서 일즉부터 計畫中이든 스케트場은 京城運動場野球場緞帳에잇는選手休止所인百五十餘坪에다 水道를 끌어드려 結氷케하야十日부터同링크를 一般스케트팬에게 公開할터이라한다

延專對京大決勝戰績

【東京】第十六回 全日本男子籠球選手權大會 最終日의 延專對京都帝大決勝戰은 八日午後二時半부터 神宮外苑코-트에서 擧行하야 四十二對二十二의大差로延專이優勝하엿다 京大軍은 始終延專의 猛攻을 防止하며 捲土重來하려 여러번 交代한것을 다음과가튼「스코어」에서明確히 엿볼수잇다

全延專42 (17 25 …… 4 18) 22京大

【延專】		得	反
金應鎬	F	3	1
洪文吉	F	17	0
顏殷鉉	C	7	1
張利鎭	G	12	3
李性求	G	3	1
		42	6

【京大】		得	反
平塚	F	3	0
福山	F	2	1
山本	F	2	0
[illegible]出	F	2	0
本間	F	2	0
村上	C	3	1
石川	G	0	1
松井	G	6	1
半田	G	2	1
松本	G	0	0
		22	5

日本庭球順位發表

【東京電話電通】日本硬式庭球協會에서는 九日에 一九三五年度庭球順位를 다음과가티 發表하엿다

▲男子單式 1、山岸(慶應)2、平井(同上) 3、倉光(關大)

▲男子複式 1、山岸 村上(慶應)2、安部 川地(稻門俱) 3、藤倉 塚田(明大)

運動界集會

▲高麗卓球聯盟創立總會는 今十日午后六時부터 鐘路中央基靑社交室에서 열린다이라한다

▲本社講堂消息▼

▲一月十日午後一時 鄭興燮君崔貴英孃結婚式

조반전

▲총독부에서는 조선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을 실시하라고 가본조사를한결과 ▲남조선은주심으로 십개도에 총수사천오백이십팔명이란수자를 발표하엿다 ▲학대받는표준을 어떠정도로 정햇는지는 알수업지마는 고래가튼 어른들살에 들녀지고잇는 어린새우들이 이뿐만이아니겟지! ▲아동학대말이낫스니말이지 일은좀오래되엿스나 개년상마해도 현재모전문학교교수집에 고용으로 잇는 열세살된 계집아이가 손발에 당근질을 당코 경찰에까지호소해온 참혹한 일이 잇섯는데 사천여명 그들중에 이소녀도 끼엿슬터이지▲전문학교교수자격을 가젓스니 혹 미국가튼 나라에 류학시절 흑인(黑人)린치법을 직수입해온 버릇인지는 알수업지마는 전문학교 교수의 자격으로도 각금 이런 행패가 잇스니 무지한 계급에서야여북하라고! ▲당국자도 조사하는데 입년、초안하는데 입년、헛나발 불지말고 어린 그들이 끌병드러죽기전에 보호방법이 잇거든 속히 실시할일。

紛失한荷物의 賠償에不服控訴

강원도서잠종지를분실한 內鮮自動車相對訴訟

자동차회사가 손님의 물건을자동차에 실고 가다가 떠러드려서 일허버리고 그손해를 무러주지 안켓다고 버티고잇는소송사건이잇다 강원도 양양군도천면론산리(襄陽郡道川面論山里)사는 장인원(張仁源)씨는 서울관수동(觀水洞) 내선자동차회사(內鮮自動車會社)를 상대로 작년겨울에 강릉(江陵)재판소에손해배상천원청구의 소송을 이르켯든바 결국 원고 장씨가 재판에 이겻는데 피고 자동차회사에서는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엿다 소송 리유는 원고장씨가 작년 구월십이일에 강릉잠종취체소(蠶種取締所)에잠종지를 검사마트려 그의사는근읍까지 차표를사고 또 그잠종지 일천삼백 팔십여섯장을 그자동차에 실리고 그 운임으로 합계이십원륙십오전을 주엇는데 그자동차는 강릉으로 가든도중 양양군현북면 광정리(縣北面光丁里)부근에서 그종지중 구백두장을 분실해버렷다하다 하창에 그당시시가로일원오십전식게산하드라도 합계 일천삼백오십삼원의 손해를 입엇는데、이것은 운전수의 부주의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가운데서 천원청구의 소송을이르켯든것이다 피고는자긔들에게 책임이업다고 버티고 일심판결에 불복하고 공소한것이다

自稱貿易商人이 現金窃盜逃走

【井邑】정주읍수성리(井州邑水城里) 대창려관(大昌旅館)에 지난사일오후열시경에 어떤 신사한명이 드러와서 본적지는 군산부남정(群山府南町) 이라하고 직업은 해산물무역상이며 본명은 김판길(金判吉)(三五)로 숙박을한후 자다가 동일오후열한시경에 한방에서 가리자든 모물상(毛物商)인김두쇠(金斗釗)(二七)의 깁이잡는틈을 타서 족기에 넛든 지갑을 절취도주하여버렷다는바 현금은 륙십여원되다하며 급보를접한 경찰서는 범인체포에 노력중이나 아즉잡지못하엿다고한다

自働車顚覆 六名이死傷

【裡里支局電話】팔일밤아홉시반 전북익산군왕궁면평장리(益山郡王宮面平章里) 김권섭(金權燮)(二一)외 두명이기생세명을 데리고 리리 령남관(嶺南館)에서 놀다가 다시자동차를타고 전주청풍관(全州淸風館)에가서 한바탕노른후 도리오든도중 완산군조촌면 반월리(完山郡助村面半月里)에서 자동차가 전복되야 한명은 즉사하고 두명은 중상을당하며 기생세명도 경상을당하엿다 순관리리경찰에서는 운전수를 데리다가 전복된사실을 취조중이다

梁海女史의特志

【批峴】오래동안대망하든 녀자고등보통학교가 평북에설립된다는 깁분소식을듯고 감격에넘치여 푼푼이모은돈을 자진회사한녀사가잇다 ―평북비현양해운녀사(平北批峴梁海雲女史)(六五)는 남의세집을 어더가지고 음식점영업으로 겨우 그날그날생활을 보장하여가는녀자로서 지난십이월 이십팔일에 당지 녀자고보긔부금모집하는 긔성회원을 차저와서일금이십원을 내노으면서 우리녀자교육계에 이런사업에 서보러고 푼푼이저금하여두엇던것이니 보태여쓰라고함으로 동긔성회원들은 감사함을 마지안는다하며 일반의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同時刻四處의 永登浦怪火

요행곳발견하고진화햇스나 放火로認定하고調査

【永登浦】팔일오후 팔시경영등포 륙백이십번지일하암길(日下岩吉)씨의광을 비롯하야 부근게 천말길(川末吉)조재후(趙載厚) 리병개(李炳介)씨 숙등제씨의 주택에 원인을 알수업는괴화가 똑갓혼 시간에 발생된것을 경찰과소방조원의 기민한활동으로 즉시진화시엿슴으로 피해액은 약삼백원가량에 근치고 다행히큰손해는 업섯는데 경찰에서는 출화원인이 기괴함을 이상히녀겨 방화로 추측하고 즉시현의자삼사명을 인치하고 엄중히취조중이다

東大門署事件 近日中取調段落

年末에檢擧햇든男女十數名 背後人物을追窮中

작년 십이월 초순부터 시내동대문서 에서는 어떤 단서를어더가지고 서내락원동(樂園洞)에서 체신국원 정태헌(鄭泰憲)(二〇)을 비롯하야 중앙전화국(中央電話局)원 정정숙(鄭貞淑)(二〇) 돈암리(敦岩里)에서 체신국원 리인환(李仁煥)(二〇)등 칠팔명의 남녀청년을 검거하야 취조하는 일방 극비밀리에 멀리 형사대를보내여 평양(平壤)부내모공장지대에 잠복하여잇든 김월옥(金月玉)(二〇)(女) 백윤혁(白潤赫)(二〇)을 검거하여다노코 그동안 준엄히 취조를 진행하여 오든중 변말변시로 한동안취조가 중단되는듯하더니 지난륙일밤부터 다시취조를계속하야 대체로 사건내용도 들처낫슴으로 수일후에는 일단락을지으리라는데 내용은 절대비밀에 부치고잇서 자세히 알수업스나 경성과 평양의 두공장지대와 그린접한지대를 근거삼아 경성구룡평양『그룹』을 조직하야 각기 공장근로자 자유로동자를 체신국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서회 각각 『멤버!』획득에 전력을 다해온것이라는데 그들의 배후에는 상당히 유력한게 통과 인물이 잠복하여 잇는것은 확실하나 도모지그들을 알드리가업서 발은도록 사람의눈을피하야 동서무도장(武道場)문을 잡그고 배후인물의선명을 추궁하고잇다

檢事局出動으로 司法警官을指導敎養

職權濫用과瀆職事件頻發로 法務當局의新計畫

법무국에서는 최근에 사법경찰관의 직권람용행동 또는 독직사건이 빈발하는 불상사를 방지하며 사법경찰사무의 쇄신을 도모하고저 특히 사법경찰관회지도교양을 각검사국을 동원하야 새해부터 실시하게 한다 즉 검사국과 사법경찰관의사무련락을 원활케하며 능률증진식히는 동시에 인권옹호를 립케 하기위하야 법무국에서는 전조선 각검사국에 명령하야 다음과가튼 세가지방법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지도교양을 식히게되엇다한다

一、순회(巡廻)교양제도

一、소집(召集)교양제도

一、문서교양제도

전긔의 세방법을가지고 각검사국에서는 각지관내의 사정에따라서 적당한방법을 취한다는데 이것의 첫시험으로 경성에서는 일간 고등법원검사국에서、실시하여본다고한다

世界올림픽拳鬪朝鮮豫選戰

日時 一月十六、七、八日(每日午後六時半)

場所 朝鮮日報社大講堂特設링

申請 (▲一月十四日까지同聯盟事務所(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四三)又는朝鮮體育會事務所로 ▲計體量은一月十五日午後二時 東洋拳鬪會에서)

主催 全朝鮮아마拳鬪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淋毒性疾患에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特許製法 バロール

바로-루

元來淋毒의可驚할猛烈한病勢의昂進은, 不知不識間에男女間諸種의所謂淋毒性諸疾患을釀成하는것으로서, 참으로戰慄할바가잇다. 따라서局部療法과此等諸疾患의豫防治療와를兼備한安全한治療方針을求하는것이萬全을期하는捷徑이라고할수잇다 이런必要로부터優秀한內服藥의出現을要望함은 時代的要求의所以이엿다。

그런데治淋을目的하는內服藥으로서는 옛날로부터 專門家에依하야 使用되엿든것은 白檀油(サンタル油)인바, 其他에銀이殺菌消炎劑로서 卓越한效能을갓고잇다하는것도 一般的으로 認定되는바이다. 그런데 藥理와銀은可及的少量을써서 效果잇는것으로 形成하려고하는 要求的必要로부터 그方途로는 銀을溶媒中에顯微鏡으로 보이지안는分子에갓가운程度의無限한微粒子卽, 코로이드狀態에分散식히는것이必要하며 다시 理論上, 銀은食物及胃中의蛋白質이나鹽類와化合하야 純然한金屬으로서의 效果를喪失하게됨으로서 銀을코로이드狀態에分散함과同時에 此等蛋白이나 鹽類에侵犯되지안흘方法을試하지안으면 안된다. 萬若그것이 되지안는다하면 銀은內服藥으로서의 價値를일케되는것이다。그런데 從來에銀을코로이드狀態에分散할수잇섯드라도 所謂코로이드粒子의微粒의程度에잇서서 너무過大한感이잇섯슬뿐아니라、溶媒로서는油脂類를使用하는것이 全然不可能함으로서 前述한바와가티 遺憾되지만今日까지達成되지못한것이다。

코로이드 銀膠質內服療法의完成

그런데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는 同大學敎授堀場理學博士及小田切理學士의發明에依한特許(金屬オルガノゾル製法)을應用함에따라, 銀을白檀油中에 極微粒코로이드狀으로서、더욱히 濃厚하게分散함에成功하엿스며銀オルガノゾル白檀油의完成을다하엿다。그리하야 비로소溶媒에油類가使用되고、그結果로서 內服하더라도 銀이前述한바와가튼 惡影響은何等업게되엿스며、또한코로이드化한銀의微粒의程度가普通의顯微鏡으로서는 볼수업슬만큼 極微粒子가되는바、그의吸收力은참으로굉장하며、從來에銀의內服化가 가장至難事로서 完全히達成치못하든것이、淋疾治療上의驚嘆으로서 銀과白檀油의相乘的効果를全幅的으로 活用하게되엿다。이것이卽 本劑バロール이다。그런데本劑는同研究所內에서그特許施設인現化學的操作으로써兩先生監督下에嚴密製造되는바이다。

本劑獨特한醫治作用

따라서本劑バロール게의醫治作用을보면、內服에依하야何等의中毒作用을이르키는일이업고 銀オルガノゾル獨特한作用으로서 體內에吸收되야 迅速하게滲透作用을發揮하며、또는銀本來의强力한深達性殺菌消炎力이遺憾업시發揮되며、부라운運動의特殊活動을利롭게하며、尿道의粘膜皺襞內病巢深部는勿論其腺細組織內鼠蹊部의淋巴腺、婦人의膣의細織內、子宮喇叭管內等의深部에直接殺菌作用을出現하게되며、이淋菌膿球의破壞殺滅은顯微鏡下에서비치여볼수잇다。

이런特徵은銀效果의內服化에成功되엿슴으로써本劑特有의現象이다。더욱히 白檀油도尿道의防腐消毒作用을營爲하며、粘膜을刺戟식히지안코며炎症을增加식히는일이업고、銀과의兩作用과相俟하야淋疾治療의目的을全幅的으로達成하게한다。

다시銀의局部治療劑는炎衝性을이르킬憂慮가잇다、그러나本劑バロール는內服藥인故로 그러한일이업고、오직單一한普通白檀油劑는오래服用하면胃腸障害에걸려泄瀉等을이르키며으히려藥效等을減殺식히는때가만타、本劑는銀オルガノゾル라膠質「코로이드」인바 親和性에豊富하야副作이업고、膠囊에너허서球劑가되야 服用키容易하며精神的又는時間的으로不便不快의感이업고、一般局所注入劑、挿入藥等과가티、藥劑使用에依한患者의苦惱를顯著하게輕減하게한다。

【適應症】

淋毒性尿道炎、膀胱カタル

淋巴腺炎、攝護腺炎、副睾丸炎、子宮內膜炎、腎盂炎

女子尿道炎(消渴)、喇叭管炎、婦人淋毒性疾患

バロール는全國各地有名藥店及데파-트藥品部에잇슴、品切된때에는直接發賣元에照務、振替貯金又는代金引換으로서注文하시면衛送함、郵券二錢又는三錢代用도可

注意 本劑는獨特한銀オルガノゾル白檀油인바絕對로他에類似品은업다。買求時에는特히バロール라指名하시라。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十五錢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大通(神田驛前電車通) 振替東京五四〇番・代表電話神田二一〇五番

支店 大阪市東區淡路町一丁目 振替大阪七七九五番・電話北濱二三六九番

B-37

院興、車踰等地엔 洞民의 九十%流離

오는봄까지게량자는不過七戶

龜城郡下火田民慘狀

【龜城】작년의 농형은 대체로 풍작이라고 전하엿스나 단지수전의 일부뿐이엿고 그리면에 숨길수업는 화전의 전멸로인한화전민의 비애가 엄연히 잠재하여잇다 평북귀성군귀성면 원흥차유、처룡(院興、車踰、青龍)삼동은 군내의유명한 화전부락으로 동민의 구십파센트 이상은 전혀 화전민에 속하는바 이것도 해마다 화전취체의 엄중으로 극도의 공황 속에서 갈바를 모르고 방황하는중 더욱작년은 희유의 랭한으로 화전은 전멸되여 지금까지는 겨우 부채를어더 입에 풀칠을 하고잇스나 그것도 다시 어울수업는 형편임으로 부득불 남부여 대하고 이역만주로 류리하는동민이 전동민의 구십퍼센트 이상이라는바 더욱심한 원흥차유(院興、車踰)량농민은 명년봄까지 량식을 계속할자가 겨우 한동내에 칠호뿐으로 그외 구십삼파센트의 다수동민은 전부 류리상태에잇다는바 작년 소위빈민구제라는 미명아래에 모부호의 양미를 대부한 독촉이 성화가타서 설상 가상으로 더큰고통을 당하고 혹은 도망 혹은종적을 감추는등 화전촌을 중심으로 한 일대비극이 연출되여 잇다는바 이정상을 당국은분제시도안하고 오직 긔계적 활동만계속하고잇다한다

三料亭은停業處分

其餘는同情休業

事態는去益複雜해저

料亭과券番紛糾後報

【平壤】조선인측 료리업조합과 주식회사 긔성권번과의 사이에 회대할인상문제로 분규가일어나 조선인료리업조합에서는 중국인 일본내지인 료리업 조합의 응원미테서 륙일밤 일제히 휴업을 단행하여 사백명 기생들은 불리우지도 못하고 칩일에일으렷는데 평양서에서는 료리업조합원전부를 호출하여다가 권번사장 윤영선(尹永善)씨가 목하 일본내지에 출장중이므로 십오일경에 귀임한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여 료리점조합에서는 그러케하겟다고 답변하고 도라왓서다

그런데오후평양서에서는장춘관(長春館)국일관(國一館) 우춘관(又春館)등세료정에 대하여 칠일부터단연영업정지선고를 하엿슴으로남은다섯곳료정에서도 공동전선을 취하기로되여팔일부터는 영업을중지하리라는데 전긔세료정이 영업정지처분을당하게되리유는 경찰과의 공약을 무시하고영업을 정지하여 공안을 방해햇다는 것인바 이때문에 관련된 인력거를 칠구하는긔성조가리 타격을 밧게되리이어서압흐로의 문제의 귀결처가 극히주목을끄은다

그런데 조선인 료정측에서는 현하의 상태로서는 도저히영업을지탕할수업슴으로 지금까지기생화대한시간 일원중에서 일할륙분오리를 수수료로 바더왓스나 압흐로칠분오리를 올리어이할사분으로하라는것으로권번측에서는 이것을거절할뿐아니라 기생총회를 소집하고 결국 칠분오리는 기생의 수입에서 떼어내여 료정의 요구를들자고 설명하여 기생전부의 동정을구하는태도에 나아왓다 어쨋든 료리업조합 권번 인려거조합 기생등 사각가관계를 진사건인마큼 일반의 주목을끄을고잇는것만은 사실이다

竊盜兩件

【金堤】신년벽두에 강도가 돌현하야 김제군하의 인심은 극도로 흉흉하다 김제군 원촌면 련정리(月村面蓮井里)에 거주하는 박성수(朴聖洙)라는 부호의집에 지난륙일 오전사시반경 외가족이 깁히잠들고 잇슬즈음 복면한장한이 내실(內室)에 침입하야 돈을내라 강청함으로 주인박씨는 일금이십원을 내여주며 이것밧게 업다함으로 강도도 두말업시 나가버렷다 이사건이 발생하자 김제서에서는 비상소집하야 대수색을 한결과 그중에 유력한 혐의자 세명을 검거 하야방금 엄중한 취조를 진행중이라는바 확실한 증거품을 장악하엿슴으로 범인 검거는 금명간되리라고한다

【南陽】병자(丙子)신년벽두에당지에 강도가나타나서 전시민의 인심을 흉흉케한사건이 잇섯다 지난 초하로날 오후구시반경에 시내하주운송집에는 주인이 업는틈을타서 강도가 침입하야주인지창룡(池昌龍)의처(妻)가 혼자 집을직히고 잇는것을 구두발길노 바차면서 돈을내라하는 바람에 부인은 현장에쓸어저서 하혈을 두되가량이나하엿데 그순간 어떤손님이 주인을 찻는소리에 강도도 겁이나서 그대로 도망하엿다는데 당지경찰에서는 대긴장리에 범인수사에활동중이라한다

百圓紙幣를偽造

賭博錢으로使用타가

畢竟發覺、警察에就縛

【平壤】도박자금 조달을위하여 백원지폐를 위조햇든 남자가 평양서에체포되엿다 범인은 평북박천출생(博川出生)으로 부내진향리(眞香里)에게주하는 장정현(張正鉉)으로 작년가을 평양에와서 사긔도박영업을 개시햇섯스나 자금의부족으로 백원지폐 십일매를 위조햇든것을 평양서원이 발견검거하여다가 동회와중권위조취체법위반범인으로취조를개시하엿다

婦人擲柶大會盛況

【大邱】대구부인유지십여명은재래의이중과세(二重過歲)의 폐해를 일소하고 단연양력과세실현운동을 일으키고 임시대구부인유지회를열고 자기위원을 결정하엿는바 제일차양력과세 실현운동(陽曆過歲實現運動)의 하나로서 본보대구지국과 공동주최로지난일월륙일에 「제일회대구부인척사대회」(第一回大邱婦人擲柶大會)를 대구공회당에서 개최하엿든바 오십여명의 선수가 주야를 통하여 백열전을 전개한후 오후팔시 대성황리에 폐회하엿다하며 부인회 위원과 당일수상자는다음과갓다고 한다

◇委員 金粉順 李春壽 嚴春枝 白鳳仁 金粉玉 文相玉 李惠生 金貞任 李順南 金蓮連 金榮郞 朴曉星

◇受賞者 第一等 金相己 二等 園福覺 三等 李春壽

◇便賞 靑東(便長 鄭春枝)

地方人事

▲張吉煥氏(府內面長) 辭任人事次 本社江華支局來訪

▲金經完氏(宜川基靑理事)今番京城中央靑年會에서 열리는靑年會指導者修養會에 參席次去六日午後六時半車로京城向發

▲李成三氏(宜川基靑幹事)同上

▲渡邊道夫氏(開城府會議員)一月八日於京城黃金町에서 遭外艱

伊川郡下各面에

農民夜學을開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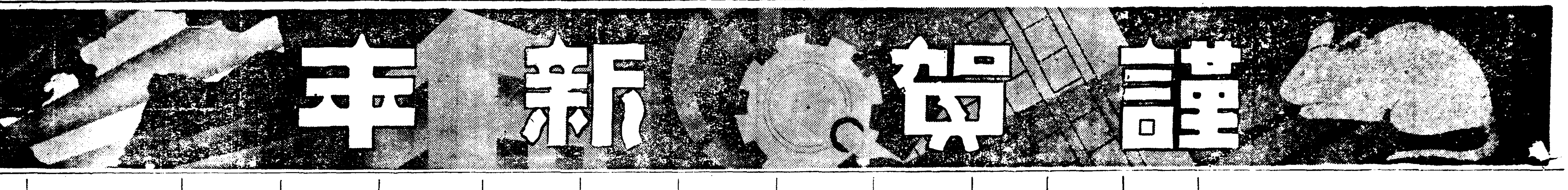
三十餘處에글소리琅琅

【伊川】강원도이천군내 십일면에서 현재농한기를 리용하야무산아동은물론 일반문맹을 퇴치코자 농민야학회를 삼십칠개소에서 개최하고 산술、국어、조선어와 일반농가에서 실지로행하지안흐면 아니될 가계부긔입방법등을 교수한다는데 강사는물론 무보수로서 교수하며삼십칠개소의 야학생은 이천명에달하는바 성적이매우 양호하다고한다

굿노리盛行으로

弊害莫大

【安州】평남 안주군안주읍(安州邑)에는 각교사회단체와 위정당국의 노력으로 수삼년동안 안주시가에는 무당노리가 전연 끈허저일반인사는 저윽이 안심한든바 근래에는 또다시 눈을피하야시가지에서 약산리상거되는 압당산(前堂山)에 무당의소굴을 지여가지고 매일매일 어리석은부녀들의 주머니돈을 빨아섯다는데그자세한바는 엇던 가정에불화가잇거나 병이발생하거나 하면두말업시 압당산신에 주는벌이라하야 그와가티 가장에 눈붉혀가며 일수로 「굿」을 한다는데 여기에 소비되는 금액이 년오천원에 달한다는데 일반이사는 당국의 무인을 비난한다고한다



博川

博川驛前 天日精米所 電話九番

博川邑內 兪允七

博川面職員一同

博川郡農會

博川邑內 吳允贊

博川邑內 和信連鎖店

平北博川驛前 大光堂印刷所 電話三五番 振替京城一六〇三三番

殖產銀行博川支店長 禰屋謹一

博川郡 庶務主任 金斗洽

博川公立普通學校長 仲摩奈良門

博川面 協議員 張炳健

博川郡廳 桂燦謙

博川中央通り 春山醫院 醫師 李吉斐

博川本町 日用雜貨、メリヤス問商 李泰日洋品店

博川邑內 卓用濟

博川邑內 金熙俊商店 電話四〇番

博川郡邑內 三世醫院 醫師 李載禧

博川驛前 ㊅大昌運輸部 電話一五番 振替口座京城一三五七五番

博川郡邑內 博川醫院 公醫 金禮容 電話一八番

博川公立尋常小學校長 石川軍太郎

博川郡邑內 長春館 主 金燦珍

博川本町 濟生堂藥房 藥種貿易 金鼎奎

北鎭

雲山郡北鎭 孟北貨物自動車合資會社 北鎭營業所

北鎭郵便局員一同

雲山郡北鎭 濟衆醫院 院長 金基磐

雲山郡北鎭面西町 自動車修理 部分品販賣 平安工業社 主 康基泰

雲山郡雲延面 國有林保護組合長 朴化俊

雲山邑內 金銀商 劉麟慶

雲山郡北鎭面大岩洞 鑛業 朴春根

雲山郡北鎭面鎭洞 鑛業 白景台

雲山郡北鎭 東洋合同鑛業會社 吳璟植

雲山郡北鎭面鎭洞 鑛業 高秉烈

北鎭面長 金泳彬

雲山郡北鎭面橋洞 鑛業 崔濟文

雲山郡北鎭面鎭洞 第一區長 卓桂冑

雲山郡北鎭面於自洞 鑛業 李載根

雲山郡北鎭面橋洞 泰昌釀酒組合北鎭支店 主任 李奉欽

雲山郡北鎭面橋洞 鑛業 金國珍

雲山郡北鎭面橋洞 鑛業 金義璜

雲山郡北鎭面大岩洞 鑛業 韓永甫

雲山郡北鎭面鎭洞 鑛業 鄭承柱

雲山郡北鎭面三山洞 鑛業 李西林

雲山郡北鎭面鎭洞 鑛業 金成柱

雲山郡北鎭面橋洞 鑛業 趙昌準

雲山郡北鎭面橋洞 鑛業 金雲尙

陰城

洋品雜貨 和信百貨店

綢緞布木 春和商店 主 朴載春

朝鮮料理 國一館 主 韓一愚 金蓉花 金菊花 田山紅 金玉珠 孫彩玉 金明姬 林春桃 金錦珠

東興酒造場 主 吳興善

カフエー永豐

料理飲食 吳周泳精米所

金物雜貨 吳周泳商店

陰城邑人里 李武榮

忠北線蘇伊驛前 申東勳

食料品 李應榮商店

鮮一洋服店 主 李洲相

宮村伍市

陰城自轉車店 主 宋正業

綢緞布木商 南祇祐商店

金物商 白榮基商店

陰城醫院 醫師 金聖煥

陰城印刷所 主 安秉玉

開城旅館 主 崔弘烈

綢緞布木商 鄭東煥

三光運送店 金泰洙

陰城氷庫 主 [illegible]

宋長洪 朴敬云 大成自轉車店 主 金昌成 朱明煥 支那料理 鎭江樓 支那料理 會仙園 李聖用 陰城郡陰城面平谷里 南祇佑 崔永柱 金聖培 崔載麟 潘炳老 李春載

吳祇默 慶建秀 李亨和 雜貨商 同勝德 仁德商店 主 宋鎭鉉 忠州旅館 金月仙 太平寫眞館 雜貨商 金生東 沿采榮 全南龍 白俊臣 慶記號 柳萬卿

朝鮮日報社陰城支局 職員一同

000078

義興

軍威官公吏一同

軍威郡義興面邑內洞 高應根

軍威郡義興面邑內洞 高大根

義興公醫 許燦

義興產業組合

義興酒造株式會社

義興金融組合 職員一同

軍威麯子組合

華水釀造場

司法書士 金泰振

軍威郡古老面事務所 職員一同

軍威郡 友保面長 李光宰

軍威郡缶溪面事務所 職員一同

軍威郡義興面梅城洞 金炳武

軍威郡山城面長 李泰晋

軍威酒造株式會社

裵鎬奎

義興郵便所長 山下豐記

古老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義興面事務所 職員一同

鶴城酒造組合

孟中里

博川郡東南面事務所 面長 池淳明 會計員 金得龍 書記 金基公 技手 韓載元

京義線孟中里驛前 鐵道貨物取扱 東地方陸運搬 セメント、石炭 各種農具一式 販賣海陸產物 委託販賣 (二)孟中里荷主運輸組

德安面南五洞 農民會長 朴庸緖

玄米製造 肥料販賣 委託販賣 ㊉永昌商會 主 金永淳

孟中里公立普通學校 田中厚

平北博川郡東南面孟中洞 農業倉庫長 鄭義容

孟中里郵便所長 小森泰次郎

孟中里 大成館 主 金正化

寧邊郡獨山面德星洞 元興商會出張所

博川郡東南面孟中洞 大昌商會

孟中里驛前 三和精米所

孟中里驛前 李文翼

興京

興京縣朝鮮人民會

興京縣河南東街 回春堂藥局 主 諸承律

興京縣河南街 鐵山館

興京縣河南東街 滿鮮旅館 主 李春奎

興京縣河南街 花月館

興京縣河南東街 雜貨商 東洋商會 主 金漢洙 金容振

興京縣河北 義州館

興北縣河北 裕興當舖 主 金泰興

興京縣河南和東慶藥院 金鍾國

興京縣河南東街 東昌旅館 主 李炳坤

興京縣河南街 金鍾遠

興京縣河南街 精米業 世昌號 主 徐世明

興京縣河南街 文桂守

興京縣河南街 綢緞布木 和洋雜貨 海陸物產 各種皮物 義信商店 主 朴永淳

興京縣河南東街 精米業 協成號

謹賀新年

宣川

龜城郡梨峴面眞鳥洞
眞鳥金山

宣川邑內
朝鮮高等料理
碧城樓
主 吳三女
電話一五七番

宣川邑川北洞
高等料理
琴松舘

米國싱거ー裁縫機械會社宣川分店
金基輔
長電話一一六番
共同火災保險株式會社宣川代理店
愛國生命保險株式會社宣川代理店

有待堂居士

指定
信聖學校
電話一〇七番

宣川邑中央通
米穀肥料
農具官鹽
海陸物産
農工商會
田文欣
電話一四七番
振替京城一四三三番

宣川邑本町
東興印洋襪製造元
諸雜貨(直輸入)卸商
金成商會
電話一三四番

平北宣川邑內
綢緞布木商
龍洋商會
主任 金允烈
電話宣川局六八番

太陽商會宣川本店 長電一二四
太陽商會新義州支店 長電九二三

宣川邑
李泳贊
電話一三八番

宣川邑
宣川醫院
院長 郭麟模
電話一五四番

宣川邑
仁濟病院
電話五九番

ファレンワルト浮遊選鑛機械製造元
鑛山用諸機械設計販賣元 商工鐵工所營業部 長電話一二二番
鑛山用諸機械設計製造元 商工鐵工所工場部 長電話一四五番

宣川酒造株式會社
電話十三番

宣川邑

宣川會舘

宣川邑川北洞
金承吉

宣川邑川南洞
一二五木工所
主 金顧龍 李廼俊

宣川邑
朴銀玉
電話一一一番

宣川邑
崔允涉

宣川金融組合
職員一同

宣川郡東面
田泰永

宣川邑內
宣興商會
金景熙
電話三六番

宣川郡東面
黑眉居士

宣川邑
金元澤

宣川
保聖女學校
電話一五三番

宣川邑川北洞
一般外科
金醫院
電話五二番

宣川郡廳

平壤
羅相龍
電話六四二番

宣川邑
吳弼殷
電話一一四番

宣川邑
張利郁

京義線宣川驛前
米穀商
大陸商會
電話一一九番
電略(タイ)文八(대륙)

朝鮮平北宣川本町
宣川印刷所
郭斗成
電話宣川局一〇四番
振替京城一四四五二番

宣川本町
朝日樂器店
主 金相鳳

平北宣川邑內
萬貨商店
主任 韓炳璘
電話六八番

宣川本町
金物商
全基賢商店

宣川邑內
崔泰日
電話五六番

京義線宣川驛前
鑛山用機械製作所
平安鐵工所
長電話一四四番

宣川邑川北洞
韓暎陽
崔治速

宣川邑內
安秉均

東林金融組合

宣川邑內
金允根

宣川金融組合評議員
李益德

宣川邑
大東洋襪工場
金淵豐
電話六番

宣川邑
李昌銓

宣川邑
田徹敬

宣川本町
最新流行高級洋靴製造販賣
國一商會
金尙伯

宣川邑川南洞
農具及家具製造販賣
帶鉅製材
ロクロ作業
直正木工所
朴熙純

宣川邑內
青山木工場
朴贊斌

郡山面
金潤泰

郡山面
桂化淳

宣川邑
平和食堂
洪炳守

宣川邑
黃海食道園
電話一五五番

宣川邑
藝妓 田錦花

宣川邑
藝妓 郭錦仙

宣川邑
藝妓 金蘭心

宣川邑
藝妓 鄭月色

宣川邑
藝妓 李春子

宣川邑
藝妓 李華青

宣川邑
東西洋服店
電話一三八番

京義線宣川驛前
鐵道貨物運搬取扱業
(二)合資運輸組
主 高晶山

宣川邑
食料品商
三采商會
主 李正洙
電話一七番

天道教宣川宗理院

宣川天道教會
朴希賢

宣川邑
金致濟

宣川邑內
李承華

平北宣川邑內
綢緞布木商
益昌商會
主 車禎鎬

宣川郡水淸面嘉物南
日昇商會

宣川邑本町明信旅館前
全能式綜合電氣物療科
萬和電療院
電療士 金鐵濬

宣川郡水淸面雁山洞
韓承鎬

宣川邑
農民共生組合

宣川警察署員一同

宣川稅務署

宣川邑本町
カフエー花月

宣川邑
松竹食堂
電話一四六番

宣川郡內
請負業
田柱青

宣川邑
韓秉玉

東林郵便所

宣川邑川北洞
金松運

深川面長
桂動炳

宣川郡水淸面
保生醫院
崔琮柱

中根之智

會寧

會寧銀座通
濟世醫院
院長 李康文

會寧邑
加賀商會

會寧邑昭和通
會衆醫院
院長 李鴻翼

會寧榮町
共信商會
電話一七七番

會寧邑鰲山洞
金命夏製材所
電話三三四

會寧銀座通
工事請負業
蔡藤工業所

會寧邑二洞
李始煌

會寧邑鰲山洞
朱學鳳

會寧壽町通
ウオルガ洋服店
ドルマトツ

會寧邑三洞
三聖醫院
院長 金□□

會寧本町
青山印刷所
主 崔泳璉

會寧驛前通
吉利惠美壽

會寧邑鰲山洞
豆滿江林業株式會社

會寧銀座通
平仁商店
主 李仁寬

會寧邑
普興女學校

會寧邑
會寧電氣株式會社

會寧土曜會
株式會社朝鮮殖産銀行會寧支店
株式會社朝鮮商業銀行會寧支店

會寧邑大正通
海岡商店
主 魯德淳

會寧邑三洞
崔泳鱗

會寧邑南門外
丸屋商店
電話一五二番

會寧邑本町
永信商會
電話一一五番

會寧邑大正通
世一堂藥房
主 崔鎭淑

會寧邑
食道園

會寧邑本町
前田政商店

會寧銀座通
鍾元堂時計店
電話一九番

會寧邑本町
徐禎奎

會寧邑
金盛工事部
電話一二五番

會寧大正通
中央精米所
主 金昇燮